

새 수익원 창출 위한 두 금융업권의 혁신전략

자산관리·방카·펀드 등 비이자수익 확대 올인

시중은행

수익구조 다변화 속도
일시적 수익 크게 의존해
환율 변동에 취약 우려도

“전 직원의 자산관리(WM)를 전문화 하라.”

손태승 우리은행장이 내건 미션이다. 취임 후 반년간 지주사 설립 인가 신청, 차세대 전산 시스템 교체(디지털), 캄보디아 금융사 인수(글로벌) 등 굵직한 과제를 순조롭게 풀어나간 만큼 비이자수익 증대로 실적 상승세에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지를 풀이된다. WM 분야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PB지점장 제도도 도입했다.

“은행에 90% 이상 쓸린 수익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미래가 불투명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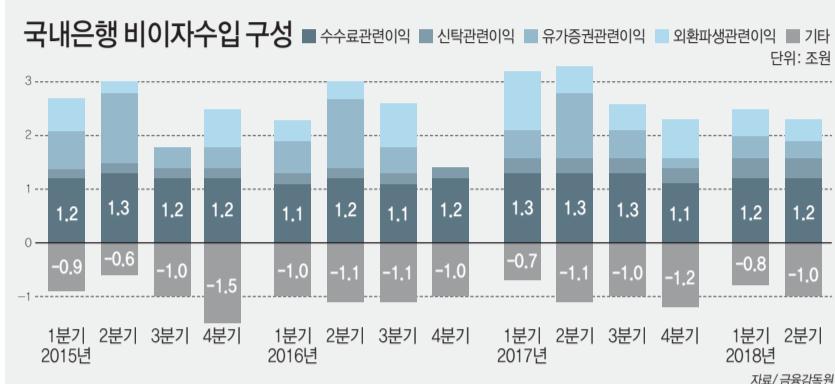
김도진 IBK기업은행장이 지난 2016년 12월 취임하면서 내세운 목표다. 김 행장은 기업은행 전체 순이익의 20%를 해외에서 내는 방안을 추진하는 과정에 서은행과 비은행자회사의 현지 협업을 강화하고 있다. IBK기업은행은 오는 10월까지 충청·호남권에 복합점포를 새로 열고 WM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5월과 7월 각각 부산 WM센터와 대구 WM센터를 오픈했다.

A은행 A지점. 지점 내 게시판에는 ‘특판 실적’ 그래프가 걸려 있다. 매달 자산관리 고객 유치 실적과 상품 판매를 보여주는 그림이다. A지점은 비이자수익을 확대하라는 본점 지침에 최근 타깃데이트펀드(TDF), 방카슈랑스 등 판매에 적극 뛰어 들고 있다.

A지점 관계자는 “매일 퇴근시간마다 지점장이 직원들에게서 부문별 실적표를 제출받고 있다”며 “특히 고액 자산가들의 자산관리서비스로 연계할 수 있는 상품 판매에 신경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 은행 “비이자수익 확대하라”

은행들이 생존경쟁에 내몰리면서 비이자수익을 확보하려는 경쟁도 달아오르고 있다. 특히 은행권 순이자마진(N



IM)이 1.52%~1.72%에 달하는 등 아직은 이자 장사로 먹고살 만 하지만, 정부 규제와 경기 침체 여파로 가계대출이 점차 줄 것으로 예상되자 은행권이 ‘먹을거리’를 찾아 이번엔 비이자수익 영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하지만 비이자 수익 확대 전략이 ‘우물안 개구리’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 유가증권 매각 이익(투자나 기타 비이자수익의 부문) 등 일시적인 수익에 크게 의존하고 있고, 환율 변동 요인에 취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

6일 금융감독원과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2분기 국내 은행의 전체 비이자수익은 1조3000억원이었다. 전년 동기 대비 8000억원이 줄었다.

영업부문의 수수료와 신탁관련 이익은 각각 1조2000억원(전년 대비 1000억 원 감소), 4000억원(전년 대비 1000억 원 증가)으로 예년 수준을 유지했다.

그러나 유가증권과 외환파생관련 이익은 각각 전년 대비 9000억원, 1000억 원 줄었다.

특히 기타부문에서 1조원 규모의 적자를 냈다. 기타부문은 대출채권 매각(기업대상 대출채권 기업 법정관리 등으로 매각) 순익, 신용보증기금 출연료 및 예금보험료 등을 말한다.

같은 시기 미국 상업은행의 수익구조를 보면 차이를 알 수 있다.

이들이 2분기 비이자 부문에서 벌어들인 수익은 680억5000만 달러다. 전년 동기 대비 13억3000만 달러가 늘어

2015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비이자수익 중 신탁(94억8000만 달러), 예금 수수료(88억9000만 달러) 및 기타서비스 수수료(39억7000만 달러) 등 영업부문이 전년 동기 대비 9억9000만 달러 증가했다.

◆ “비이자수익 환율변동에 대비해야”

자본시장연구원 이정은 연구원은 “미국과 비교해 국내 은행의 전체 비이자수익 중 영업부문에 해당하는 수수료 수익은 대체로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면서 “반면 투자나 기타비이자수익의 부문은 유가증권 매각 이익 등 일시적 수익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환율 변동 요인에 취약한 모습이다”고 지적했다.

유가증권 관련 이익은 2012년 하이닉스 주식 매각, 2015년 중 대한주택보증 주식 매각 등 일회성 이익인 주식 매각 등에서 발생했다. 기타부문의 경우 부실채권 정리 등으로 장기간 적자 상태다. 특히 올해 상반기 환율 상승으로 외환파생관련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해 외화자산의 헤지(위험회피) 등 운 영위험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병윤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17년 국내 은행 수익성 분석과 전망’ 보고서에서 “국내 은행의 수익성 전망이 밝지만은 않아 수익성 개선을 위한 은행들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부동산 관련 대출 리스크 관리 강화, 스타트업 대출 확대, 수수료 수익 확대, 해외 진출 강화 등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문호 기자 kmh@metroseoul.co.kr

가맹점 수수료 낮추고 리볼빙 수익은 늘리고

카드사

고금리 대출사업 비중 확대
수수료 수입비율 낮지 않아
취약층 위험정보 제공 해야

정부의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압박에 몸을 낮춘 카드사들이 일부 결제금액 이월약정(리볼빙) 등의 고금리 대출 사업 비중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결제를 지연시키는 리볼빙 특성상 금융취약계층이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 위험정보제공과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리볼빙 서비스는 카드 이용자가 결제금액의 일부만 이달에 결제하고 나머지 금액은 다음 달로 연기해 주는 것으로 대출성 리볼빙과 결제성 리볼빙으로 나뉜다.

대출성 리볼빙은 ‘현금 서비스’ 대금보다 이자와 수수료 지급액이 더 많은 신용카드 이용자를 위험군으로 선정하고 상환비율을 높이거나, 이 상황이 지속되면 카드 사용이 중지될 수 있는 점을 고지한다. 또 비영리 채무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내에도 수수료율이 높은 리볼빙 서비스를 통해 일부금액만 결제하는 카드 이용자에 대한 위험정보 제공과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신한카드의 경우 전 분기보다 0.03% 포인트 증가한 21.47%였으며, 롯데카드는 20.7%에서 21.0%로 늘었다.

/나유리 기자 yul115@

〈분기별 수수료 등 수입비율〉

여신금융협회(2018.2분기 기준)

카드사	현금서비스	카드론	일부결제금액이 월약정(리볼빙)	
			결제성	대출성
롯데카드	18.85	14.48	17.83	21.07
삼성카드	19.77	14.4	15.78	19.22
신한카드	19.92	14.96	17.80	21.47
우리카드	20.33	14.56	16.24	21.21
하나카드	19.8	14.36	15.77	19.29
현대카드	19.96	15.1	19.11	21.60
KB국민카드	19.4	15.15	18.51	22.55



우리은행 우리장애인사랑신탁 출시

우리은행은 장애인특별부양신탁제도를 바탕으로 ‘우리장애인사랑신탁’ 상품을 출시했다고 6일 밝혔다.

장애인특별부양신탁제도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에 따라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신탁할 경우 해당 재산의 증여세를 면제받는 것이다.

우리장애인사랑신탁은 특정금전신탁 상품으로 장애인(위탁자)이 증여받은 모든 금전 재산을 중도해지 없이 본인 사망 까지 신탁할 경우, 해당 재산의 5억원까지는 증여세 과세가 되지 않는다.

KB금융, 캄보디아에 첫 해외 자회사

‘KB 대한 특수은행’ 공식 출범 車 할부·부동산 대출 등 영업

KB금융그룹이 비은행 계열사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다. KB자산운용이 중국 상해 현지법인인 ‘상해 카이보 상무자문 유한공사’를 설립한 데 이어 이번엔 KB국민카드가 캄보디아에 자회사를 출범시켰다.

KB국민카드는 6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지난 4월 LVMC홀딩스(구 코라오홀딩스)와 조인트벤처 형태로 공동 인수한 ‘KB 대한 특수은행(KB Daehan Specialized Bank)’의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출범식에는 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과 이동철 KB국민카드 사장 등 KB금융그룹 관계자와 오세영 LVMC홀딩스 회장, 체아 웨ント 캄보디아 중앙은행 총재

등이 참석했다.

KB 대한 특수은행은 LVMC홀딩스가 현지에서 조립 생산한 자동차와 딜러샵 판매 자동차 등에 대한 할부금융과 부동산담보대출을 양대 축으로 초기 영업에 나선다.

중장기적으로는 신용카드, 신용대출, 카드 프로세싱 대행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주요 거점 도시를 중심으로 지점도 추가해 나갈 계획이다.

또 내년부터는 KB국민은행 캄보디아 현지법인인 KB캄보디아은행의 거래 고객 및 제휴업체 등을 대상으로 체크카드 사업도 시작할 예정이다.

KB금융 관계자는 “KB 대한 특수은행과 KB캄보디아은행의 협업을 통해 현지 고객을 대상으로 은행상품, 소비자 금융 상품, 카드상품 등 풀라인(Full-line)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 smahn1@

미용시술, 도수치료로 보험청구땐 사기

미용시술 등을 도수치료로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도수치료 횟수를 부풀리라는 병원이나 주변의 권유를 의심 없이 받아들였다가 보험사기로 처벌 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6일 통증이나 재활치료를 할 때 도수치료를 받으면서 이 같은 보험사기에 유의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도수치료는 약물처방이나 수술이 아니라 숙련도와 전문성을 가진 시술자의 손을 이용해 관절이나 골격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통증완화나 체형을 교정하는 치료법이다.

도수치료는 비용이 회당 최고 50만 원 수준에 달한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치료비가 비싼 반면 실손보험

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보니 일부 환자들이 보험사기 유혹에 노출돼 사법당국의 처벌을 받는 사례가 잦아졌다.

도수치료 기간에 미용시술을 같이 받으면서 미용시술도 도수치료로 청구하면 안 된다. 만약 미리 지급한 비용만큼 도수치료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보험금은 실제 도수치료를 받은 만큼 청구해야 한다.

실제 A씨는 비타민주사를 맞고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타냈다가 사기죄로 별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도수치료를 받던 중 고통이 심해 병원 측에 환불을 요청했다가 치료 대신 비타민주사를 맞으라는 권유를 거절하지 못한 것이 보험사기로 이어졌다.

/안상미 기자